환일소식

은 행 나 무

졸업호

·발행인 : 박 종 관
·발행처 : 환일고등학교
·주 소 : 서울시 중구 환일길 47

http://hwanil.hs.kr

2020년 2월 6일 목요일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라!

제67회 졸업을 기념하며

2019학년도 졸업식을 맞이하면서

김은미 이사장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졸업생 여러분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을 지나
희망의 소리가 들리는 봄을 맞이하면서
또 한걸음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환일동산에서의 재잘거림, 운동장에서의 활기찬 모습,
점심시간의 즐거움, 시험기간 동안의 긴장감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간을 마련한
고등학교에서의 성장과 성숙은
한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하고 필수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아득한 고향으로
인생 여정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일에서 젖어든 경천, 애국, 애인의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창조적인 정신으로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설립자의 정신을 머리에 이고

직업은 무엇이나 좋다,
제 일인자가 되자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의 인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인생의 역정에서
우리 모두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환일인이 되도록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1면-8면 주요내용 소개

1면 이사장님 말씀 **2면** 졸업을 축하하며 **3면** 졸업수상자 소감 **4면** 졸업수상자 소감, 환일의 추억(활동모습) **5-7면** 졸업하는 자랑스러운 환일의 얼굴들 **8면** 졸업식 특별상 수상자

200204_환일고등학교소식-은행나무(졸업호)-최종.indd 1 2020-02-04 오후 2:34:11

졸업을 축하하며

졸업의 문을 나서는 환일인들에게

박종관 교장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전15:1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Global Leader로 육성하고, 나만의 브랜드를 가진 '브랜드형 인간'을 길러내는 환일에서 꿈이 마르지 않는 이때에,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취하기 위해 모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고 불리는 졸업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졸업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버드 마지막 강의'에 나오는 스스로에게 '5가지 질문'을 해 보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1. 잠깐만요, 뭐라고요? (Wait, What?) 이해와 소통의 근원에 있는 질문이다. 2. 나는 궁금한데요? (I wonder...?) 발견을 유도하고 통찰을 이끄는 질문이다. 3. 우리가 적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Couldn't we at least?) 모든 진전의 시작을 여는 질문이다. 4. 내가 어떻게 도울까요? (How can I help?) 좋은 관계의 기본이 되는 질문이다. 5.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What truly matter?) 삶의 핵심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질문이다. 이 질문들을 통해 이해심이 넓어졌고, 호기심이 많아졌으며 일을 진전시키는데 집중하게 됐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좀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 헤엄을 칠 때 내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몰랐던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으며 나아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책무감을 가지고 훌륭한 일꾼이며 지도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환일에서 보낸 3년의 세월이 앞으로 여러분의 발전과 성공을 위한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명문 환일의 명예를 빛내는 사람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도전하고 감사하라!

이정철 교감

먼저 여러분의 졸업이 있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제 67회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역경들을 헤쳐나가며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되어주길 바라며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드립니다.

첫째, "도전해야 청춘이다." 글로벌 시대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AI(인공지능) 등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해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들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둘째, "항상 감사하라".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며 감사하는 마음에서 행복이 우러납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공부도 행운도 모두 자기편이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변함없이 부모님께 감사하고, 새롭게 만나는 선후배에게 감사하고 새로운 스승과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의 미래는 창창하게 밝아 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감사의 축복받아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자신을 길러준 모교인 환일고등학교의 이름을 빛내어주는 졸업생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고3이었습니다.

3학년 학부모회 회장 김혜정

오늘 영광의 졸업을 맞이하는 환일고등학교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취하는 지난 환일에서의 3년은 누구보다 치열했고, 열정이었습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 '경험', 좋으면 '추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의 경험과 추억들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길 바라며, 그 시절 유난히도 눈부시던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경험과 추억들이 행복했었다고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시인의 말처럼 생각하며 살기 바랍니다. 생각하며 산다는 건, 내가 열 걸음 앞서가서 '이 길을 따르시오' 하기 보단, 열 사람이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 '때론 천천히 가더라도 괜찮아. 도착하기만 하면 돼' 라고 응원의 힘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온갖 노력을 해 오신 존경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매일 자신의 한계와 도전하는 아들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를 아끼지 않으신 한결같은 부모님의 사랑도 영원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 이웃에 봉사하고 모든 것을 즐거이 섬기는 지혜의 영광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고3을 무사히 마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졸업과 성인됨을 축하하며,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맑고 초롱한 그 중 하나 별이여… 환일!

졸업이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2학년 학부모회 회장 이연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꽤 훈훈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겨울 날씨지만,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조금씩 봄의 기운이 만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3년간 우리 환일고등학교의 자랑으로 남아주신 졸업생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뛰어난 기량과 노력으로 남긴 우수한 성과들은 후배들에게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어 후배들의 오늘을 채찍질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이 환일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은 어느덧 3년 전의 일이며 이제 의젓한 성인으로 자라 영광된 졸업식을 맞이하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졸업은 그동안 졸업생 여러분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신 선생님들의 더할 수 없는 큰 보람이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자상하게 보살펴 주신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기쁨이며,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어렵게 겪어왔던 3년간의 환일고등학교 생활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더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졸업입니다. 졸업식을 마치면 이 환일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의 모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모두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생활도 많이 달라질 것이며 더 큰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를 짓는 동시에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펼쳐질 미래가 조금은 두렵고 떨릴 수도 있지만, 우리 환일 졸업생 여러분들은 어떤 역경도 당당하고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졸업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을 앞두며...

전 학생 회장 최낙준

청바지는 처음 샀을 때는 불편하고 빳빳하지만 입으면 입을수록 자신의 체형에 딱 맞는 최고의 옷이 됩니다.

환일고등학교 3년 동안의 생활은 저만의 청바지를 길들여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입학 초기에는 환일고등학교 진학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답답하고 걱정되고 두려웠습니다.

정답이 없는 입시, 확신이 없는 실력, 놀고 싶은 마음에 매일매일 미치도록 힘들었고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환일고등학교의 훌륭하신 환일고등학교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며 이 악물고 3년을 버텨나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제 마음 속에는 어느덧 괴로움은 사라진 채 열정만이 살아 숨쉬었고 열등감은 사라진 채 용기만이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러한 변화가 제 인생에서는 아주 크고 값진 경험이자 제 인생 최고의 성과라고 확신합니다.

걱정되고 힘든 일이 코앞에 닥친다면 좌절하지 말고 어려움을 똑바로 직시합시다. 환일인으로서 자신의 문제점을 항상 고민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를 극복한다면, 여러분은 각자의 꿈을 향해,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를 위해 또다시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후배들 모두 힘냅시다!

꽃을 선물하는 이유

전 학생 부회장 김우진

안녕하세요, 전 학생 부회장 김우진입니다. 처음 학생회장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조건 없이 저를 도와준 소중하고 고마운 친구들과 가족 덕분에 학생 부회장이라는 멋있는 이름을 달고 제 고등학교 3년을 매듭짓는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할머니께서는 게발선인장을 키우십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한 그 선인장을 할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잎을 닦으시고 정성을 다해 키우십니다. 매년 선인장이 하얀 꽃을 피우면 저에게 꼭 보라고 하시고는 아름답지 않느냐 하십니다. 하얗게 핀 꽃이 예쁘다고 생각은 했지만 보기 좋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올 것 같지 않았던 수능을 보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TV프로그램에서 한 작가가 '특별한 날에 꽃을 선물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작가는 식물이 꽃을 피운다는 것은 물도 충분해야 하며,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을 때 온 힘을 다해 피워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 힘을 다해 힘들게 핀 꽃은 여전히 아름다워야 하며 벌이 날아와야 한다는 불확실한 운명 앞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졸업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 꽃을 주는 것은 '네가 그동안 여기 도달하기까지 겪은 수고, 고통, 힘듦에 대해 알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필 꽃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셨을, 온 힘을 다해 피워낸 꽃들을 보며 할머니께서 느끼셨을 애틋함과 할머니께 개화가 가지는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3년의 시간동안 최선을 다하고, 원했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친구들과 피워낸 꽃에 만족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졸업을 맞아 서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 겪은 수고, 고통, 힘듦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해주며 피워낸 꽃에 대한 축하를, 그리고 앞으로 피워낼 꽃을 기대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수상자 소감

설립자상 수상자

3학년 박주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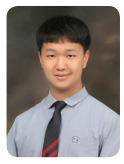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것, 설립자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 모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3년 전 예비소집일 당시 처음 환일을 등산하며 힘들었던 기억부터 낯선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던 고민까지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교과과정이 체계화되어 있는 우리 학교의 특성상 아침8시부터 적어도 낮 4시까지 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협업 활동을 하게 되고 다툼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축구하고, 같이 공부하며 내신, 입시에 대해 같이 고민하던 친구들에게 우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숨 가빴던 학창시절을 나름대로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환일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슬럼프가 오거나 도무지 혼자 헤쳐 나갈 수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될 때 무작정 찾아가도 항상 따스하게 맞아주시고 상담해주시던 선생님들 덕분에 성공적인 입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진학뿐만 아니라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큰 틀에서의 계획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 힘든 시기가 있을 때는, 특히 고3시절에는, 눈앞에 보이는 일을 차근차근 수행해나가는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3학년 민동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졸업을 앞둔 환일고등학교 3학년 민동진입니다. 졸업을 하며 설립자상을 수상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환일고에서 보낸 3년이 스쳐지나갔습니다. 제게 환일고에서의 3년은 미래에 돌아봤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만큼 값진 세월이었습니다. 3년 동안 꿈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했고 좋은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이다 한 캔을 마시려 언덕을 오르내리던 석식 시간과 10시가 되면 학부모님 눈치를 보며 도망가던 야자 시간, 신물이 날 때까지 교과서를 달달 외웠던 내신 공부 등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것들이 이젠 웃으며 얘기하는 추억이 됐다는 게 아직은 실감나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의 고된 입시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제 곁에 있어줬던 친구들과, 가족,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담임 선생님으로서 많은 부분에서 미숙하고 어렸던 저를 아들처럼 보듬어주신 윤종은 선생님, 허성희 선생님, 이은형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를 믿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던 교감선생님, 오혜경 선생님,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 덕분에 환일고등학교는 앞으로도 명문고등학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입과 진로, 교우 관계 등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후배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 자신을 믿고 매 순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일고등학교 친구, 선후배,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운화상 수상자

3학년 김우진

안녕하세요. 운화상을 받게 된 김우진입니다.

저의 3년을 이처럼 큰 상과 함께 마칠 수 있어 영광이고 저를 소중하게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무엇보다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과 저를 위해 주야로 기도해주신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하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신 선생님과 지금까지 힘든 시간과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앞으로도 오래 함께할 소중한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환일은 저의 인생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즐거웠던 시간을 보낸 환일에서의 기억은 앞으로 살면서 즐거운 추억거리가 될 것이며 저를 수식하는 여러 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보다 오랜 시간 같이 한 친구들은 환일이라는 진한 인연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앞에 말했듯이 환일은 저를 수식하는 말 중 하나로서 지금의 환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만큼 훗날에도 자랑스러우며 사랑받을 수 있도록 환일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3학년 김동건

안녕하세요. 운화상을 받게 된 김동건 입니다. 이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간의 고등학생 시절을 지내면서 환일고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추억하고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일처럼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시고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며, 다정하게 대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들과의 인연은 두고두고 기억날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이 있으면 저절로 즐겁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 행복해지던 친구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친구들이 없었다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등학교를 다녔을 것 같습니다.요즘 저는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 대학교에 입학할 제 자신이 새삼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아직 경험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3년 전,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에도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설렘, 긴장감, 기대감, 두려움 등등.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때 들었던 걱정들은 정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대학생 생활도 그리고 그 후의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잊지 않으면, 제가 앞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에 지레 겁을 먹고 피하여 두고두고 후회할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일고등학교에서 그동안 많은 것들을 느끼며 3년 전에 비해 조금이나마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님들도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걱정들이 실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학교장상 수상자

3학년 조성우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학교장 상을 받게 된 조성우입니다. 새 교복을 입고 등교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헤어진 교복과 함께 졸업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론 정들었던 학교를 떠난다는 생각에 씁쓸하기도 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3년 동안 채워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교에서 동고동락하며 힘든 순간에 서로 의지했던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11시까지 야자를 하며 성취감을 느꼈던 것, 선생님들과 상담하며 앞으로의 다짐을 한 것,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등등 3년 동안 환일인으로 지냈던 수많은 기억들이 모두 저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고3이 되어 입시를 치르며 느꼈던 교훈 중 하나는 노력하고 있을 때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원한다면 치열하게 노력합시다. 사실 제가 그런 기회를 잘 잡지 못한 것 같아 후회와 미련이 남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후배님들은 꼭 치열하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라는 작은 산을 넘고 보니 앞으로 겪어야 험난한 산들이 놓여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받은 결과에 승복하고 앞으로 남은 산들을 넘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상을 받게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교감,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3학년 김지원

안녕하세요.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김지원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영광이고 그동안 함께해주신 부모님, 모든 선생님,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3년 동안 환일고를 다니면서 힘든 점도 많았고 정말 즐거울 때도 많았습니다. 처음 환일고에 입학했을 때 '3년동안 어떻게 이 언덕을 오르지?' 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벌써 언덕을 내려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신기하면서도 아쉬운 기분이 듭니다. 환일고에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하루 종일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정이 많이 들었고 배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고3이 되는 후배들은 이제 전쟁 같은 고3 수험생활을 해야 하는데 불안해 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면서 항상 희망을 갖고 즐기면서, 매일 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환일고에 입학할 때 목표를 하나 정했었습니다. '이 언덕을 마지막으로 내려갈 때는 웃으면서 내려가자' 였는데 정말 최고의 결과를 얻어 웃으면서 내려갈 수 있게 됨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신 환일고 모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고 항상 챙겨주신 저의 1,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 이은형 선생님, 3학년 때의 허성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중구 국회의원상 수상자

3학년 박정훈

안녕하세요. 졸업을 코앞에 두고 중구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불안함으로 가득했던 고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최진성 선생님, 양성임 선생님, 명흥식 선생님과 항상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최고의 수업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신 각 과목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쉽지 않았던 3년을 함께 버텨온 친구들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3년 동안의 교내 대회와 내신, 수능 공부를 끝까지 버티며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과정을 같이 버텨온 친구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7시4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친구들과 함께 했던 자율학습, 봉학마루제, 수련회 그리고 스포츠클럽 활동이 당장 어제인 것 같은데 벌써 몇 달, 몇 년이 지나 추억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올 소중한 친구들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입시를 앞둔 후배님들에게 약 290일이라는 기간은 이 아쉬움과 후회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후배님들은 함께 걸어가는 친구들, 입시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항상 응원해주시는 부모님을 떠 올리며 학업에 더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마포구 국회의원상 수상자

3학년 안준우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6반 체육중점반 안준우입니다. 처음 이 상을 받는다고 하였을 때 제가 이상을 받아도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가 잘해서 주시는 상이 아니고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졸업을 하여서 훌륭한 환일인이 되기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체육중점반이기도 하고 환일고 사격부이기도 합니다. 제가 환일고 3년 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훈련한 결과가 좋지 못하였을 때 좌절하고 방황하였을 때 저를 다독여주시고 항상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신 사격부를 담당하시는 최진성 선생님과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옆에서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미래의 좋은 직업과 운동선수만이 아닌 좋은 직업도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안정을 찾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는 환일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졸업을 하여서 이곳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환일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상을 받게 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졸업수상자 소감, 환일의 추억(활동 모습)

중구청장상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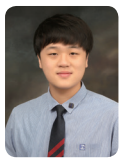
3학년 정찬일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중구청장상을 받은 정찬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노력과 행동으로 이런 상을 받았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주신 선생님, 친구들, 그 외에도 저를 도와주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짧다면 짧다고도, 길다면 길다고도 할 수 있는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며 그간 겪었던 여러 일들이 생각납니다.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 영원할 것 같았던 찰나들이 곧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희로애락들은 제 기억 속에 남아 앞으로의 대학생활, 나아가 사회생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후배님들은 아직 대입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후배님들에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목표, 혹은 그 이상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예상치 못한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만족하며 떠날 수 있는 실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의 생활에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정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일에 준비하는 환일인이 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제 고등학교 생활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포구청장상 수상자

3학년 김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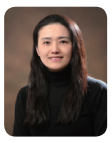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이번에 마포구청장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이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환일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겁도 나고 부담이 컸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 노력하고 그것을 지지해주시는 선생님들과 응원해주는 친구들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서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발전해내고 더욱 노력하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이 꿈이 되어 보니 벌써 3년의 고등학교 생활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친구들과 하던 시험공부와 수행평가를 보던 날의 아침의 분주함과 운동장의 따뜻한 햇볕, 모두들 즐거웠던 수학여행들의 추억들은 절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며, 환일에서의 추억을 원동력으로 더 크게 나아가고 더 크게 발전하여 제 꿈을 이루고 남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후배님들도 앞으로 남은 학창시절을 미련 없이 즐기시며 후회 없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학산에는 학생들을 위해주시는 선생님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이 항상 서로를 위해줄 것입니다. 모두들 자신의 비전을 펼칠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가슴에 깊이 남을 환일에서의 추억들!

졸업하는 자랑스러운 환일의 얼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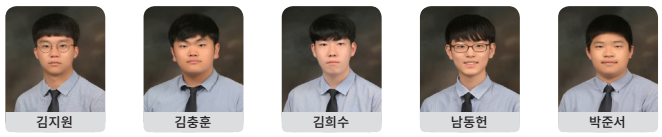
3학년 1반

담임 허성희 선생님



마무리와 시작의 겹침...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그 순간을 즐겼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던 여러분과 함께해서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그 시간 속 여러분의 모습을 귀하게 간직하며, 계속 성장해간다는 소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환일에서의 시간들이 새로운 시간을 긍정적으로 개척하며 살아하는 에너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꿈을 잃지 마십시오. 꿈은 꾸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답니다. 그리고.. 각자의 꿈을 향해 큰 날개 활짝 펴고 한껏 날아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김경민 김동희 김성윤 김예준 김종민


김지원 김충훈 김희수 남동헌 박준서

서해용 유진우 이다민 이민재 이은철

이재현 이종혁 이태호 장민서 전형석

정제홍 정준영 조민호 조성효 황호연

3학년 2반

담임 권주희 선생님

'꾸준히, 끝까지, 천천히'라는 급훈은 사실 입시를 앞둔 학생들을 잘 이끌어야한다는 책임감에 시달리던 나 자신에게 다짐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 나름대로 잘 실천한 항목은 '끝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2반 학생들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선한 의도로, 최선을 다한 후 얻은 결과는 그 무엇이나 좋다고 믿습니다. 지금 인생의 기나긴 길을 걸어가고 있는 3학년 2반 학생들과 환일 학생들 모두, 여러분들의 삶이 끝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매 순간 자신을 믿고 옳은 선택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19년 환일고 3학년 2반 학생들 모두들, 사랑합니다.~

권용빈 김상준 김수용 김재혁 김종완 김지수

김지혁 김한누리 나형진 박정원 박태영 서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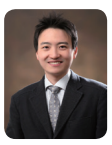
신동원 이경연 이광호 이동윤 이동준 이상호

이성재 이원민 이준성 이태훈 정동욱 조성우

최형준 최홍석

3학년 3반

담임 김기욱 선생님



환일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려오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3년의 기억들이 여러분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멋지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무엇이든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앞서 나가다가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 3년의 기억으로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3학년 3반. 여러분들을 만나 감사했습니다. 까다로운 담임을 만나 여러모로 힘들었을 텐데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여 화목하고 따뜻한 반을 만들어 줘서 고마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인으로서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밝게 빛이 비쳐 어둠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길을 올곧게 나아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건우 김세빈 김준수 김태경 김현민 박성호

박승빈 박재현 박정민 백민음 신찬민 양세진

유영서 윤대영 윤준서 이동준 이민구 이재혁

이주형 정승우 진용준 최다인 최예성 최지환

춘주영 허지석

3학년 4반

담임 김희경 선생님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가 우리반 급훈입니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 그것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한, 결과적으로 그것을 하기란 불가능해집니다. 졸업은 끝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꿈을 간직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앞에 놓인 장벽을 뛰어 넘을 간절함, 마음을 먹게 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그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내딛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권혁준 김도현 김민재 김예성 김재민 김준호

박보현 서형준 신재우 신주호 안준영 오종혁

유시헌 윤덕현 윤상현 이정석 이정우 이태경

이현수 임동주 정승윤 정우현 정원서 정지민

채성원 허성주

졸업하는 자랑스러운 환일의 얼굴들

3학년 5반

담임 명흥식 선생님

20살에 제가 참 좋아했던 법정 스님의 글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는다." 이와 같이 그 마음씨가 그늘지면 그 사람 자신이 녹슬고 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내 마음을 내가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대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증오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나그네들 아닌가. 늘 행복하시고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으로 더 많이 성장하시길...

3학년 6반

담임 김효숙 선생님(직업반)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순간입니다. 설레는 모습으로 만난 첫 날의 기억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네요. 2019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한 우리 3학년 6(직업)반 친구들 모두 밝은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반 금훈 기억날까요...'세상의 빛과 희망이 되도록'. 되돌아보니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만 여러분 모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밝힐 빛과 희망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먼 훗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 옛 담임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해 줄 것을 또한 희망합니다.

3학년 7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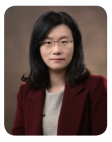
담임 윤종은 선생님

힘들어도 각자의 꿈을 위해 함께 공부하고 생활을 나누던 우리반 학생들의 눈부신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목표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달렸던 고등학생 시절을 추억할 때마다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반짝반짝 빛나는 위풍당당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되돌릴 수 없기에, 지금 내 앞에 있는 매순간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전념하고 노력하여 순간을 누릴 줄 아는 우리반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You Only Live Once! 최고의 노력으로 최선의 순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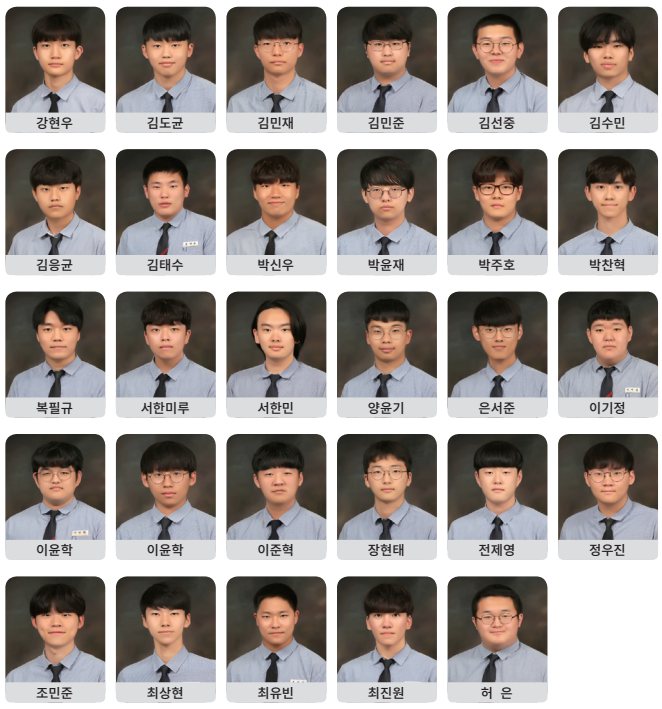
졸업하는 자랑스러운 환일의 얼굴들

3학년8반

담임 김광은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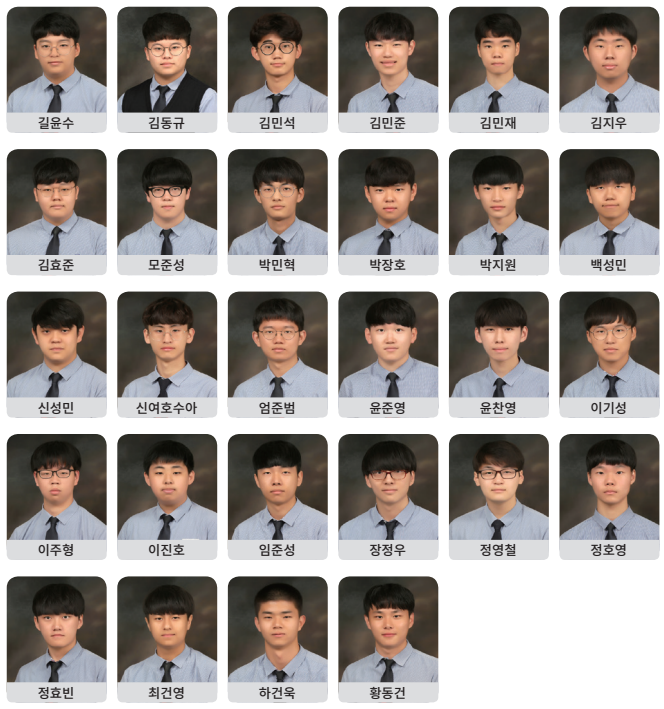
항상 웃으며 맞아 주었던 유쾌한 아이들. 적절한 타이밍에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 줄 알았던 센스만점의 아이들. 인생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집중력 있게 공부해서 보고만 있어도 너무 대견했던 아이들. 이런 아이가 정말 잘되어야 할텐데.. 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깊이 축복했던 성실하고 책임감 있던 아이들. 3학년8반 모두 일년동안 잘 지내고 잘 따라주어서 정말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함께 웃고, 서로 격려하며 보냈던 일 년. 모두에게 즐겁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새롭게 펼쳐질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3학년 9반

담임 임경희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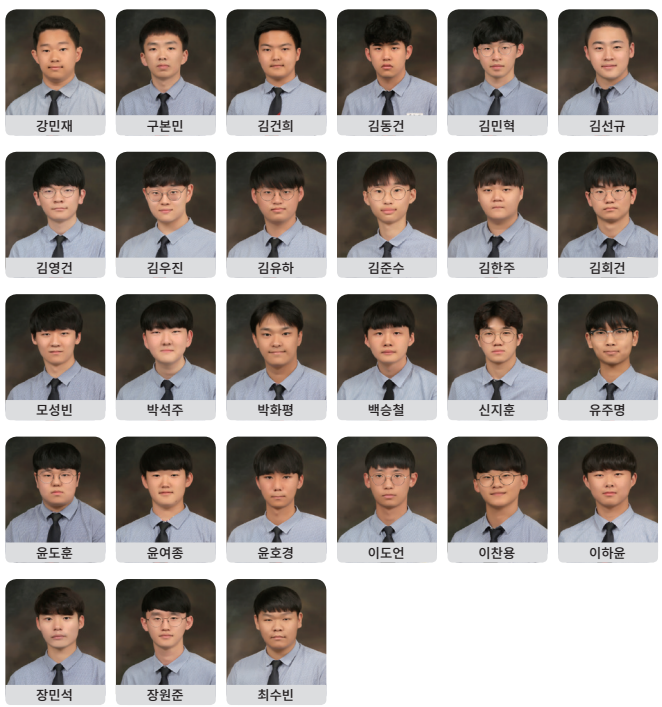
교직생활 19년차에 만난 3학년 9반 2019년 피 땀 눈물 흘려가며 자신의 꿈을 향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9반 친구들 모두에게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처럼 더 큰 세상으로 나아 가 후회 없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각자가 원하는 삶에서 큰 수확 을 얻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Do not be afraid of because of them, for the LORD your God goes with you :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 sake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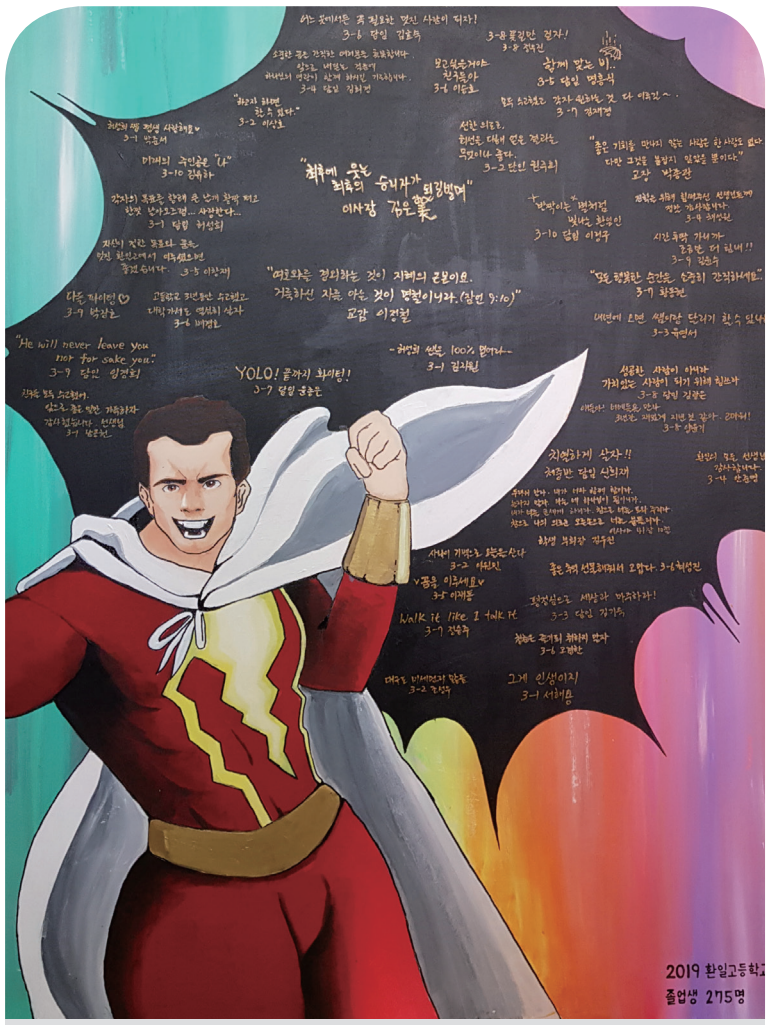


3학년 10반

담임 이링구 선생님

3년간의 추억이 깃든 환일을 떠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10반 여러분 앞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 많은 것이 '생각하기 나름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겪으며 성장해 나갈 여러분의 앞날을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이 응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별을 찾아 그 가치에 따른 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전념한다면, 무엇을 선택하든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기원하며,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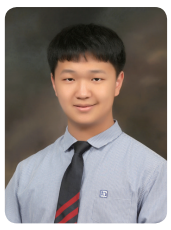




2019 졸업 기념 작품

졸업식 특별상 수상자

설립자상


민동진

운화상

박주호

김동건

김우진

학교장상

김지원

조성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허성주

중구 국회의원상

박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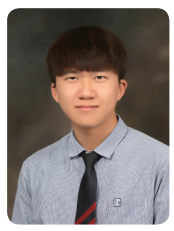
유주명

윤찬영

마포구 국회의원상

안준우

이창재


이태호

중부교육장상

김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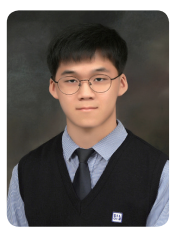
중부교육장상

변민재

황동현

중구청장상

이경연


정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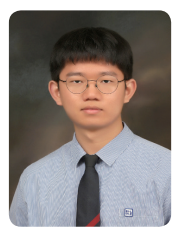
마포구청장상

김민석

사립중고등학교장회장상

김성윤

사립인문고등학교장회장상


엄준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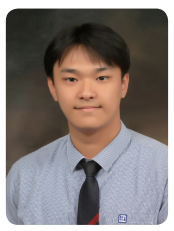
청운대 총장상

김태경

기독교학교 연맹회장상

이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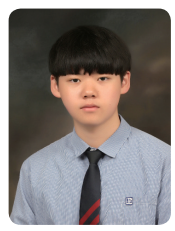
기독교학교 연합회장상


박화평

학운위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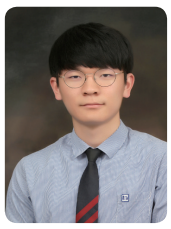
김준수

안준영


유진우

이주형

학부모회장상


김영건

박찬혁

신한은행장상

신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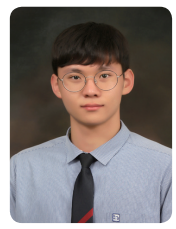
우리은행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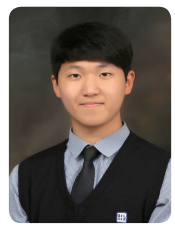
박정민

예수교대한성결교 총회장상

은서준

자매부대상장


이재혁


최낙준

여러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